

코로나·협치·부동산 3중 파고 넘어야 대권가도 힘 받는다

달달이 이낙연호 과제와 전망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

정기국회 성과 '시금석'

당 혁신작업도 속도 내고

당청관계 제 목소리 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체제의 막이 올랐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 중도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임기는 6개월여에 불과한 현실이다. 짧은 임기와는 반대로 이 대표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과연 이 대표가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대선 도전의 길로 순조롭게 들어설 것인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176석 슈퍼 여당의 수장으로 선출된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안게 됐다. 이 대표가 그동안의 경선 과정에서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코로나 19 사태라는 국난 극복과 민생 지원에 방점을 찍고 당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성과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사회 안전망 확충, 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준비, 국도 균형발전 등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 등 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일단 일정대로 진행하겠지만 코로나 19 사태 극복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문제도 풀어야 할 난제다. 이 대표는 당선 후 각종 인터뷰에서 "상식을 넘

는 가격 상승이 없는 것이 1차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방점을 뒀다. 그는 "부동산 매매 시장이 안정화의 길을 가고 있고, 임대차 시장은 큰 정책 변화가 있어서 부분적 진통이 있겠지만 곧 안정될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민관 태스크포스(TF)라도 구성, 중장기적 정책을 검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슈퍼 여당의 일반 통행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일단,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 김중민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과연 그의 뜻대로 협치가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장, 추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낙연 대표를 향해 "'176석 정당'의 행보가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정단-상임위원장단" 구성 원칙이 다 허물어졌다. 원상회복 시킬 것"이라고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의 공을 냈다. 이에 따라 '원칙 있는 협치'를 내세우고 있는 이 대표가 어떻게 야당과의 접점을 찾아갈 것인지 주목된다.

여기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혁신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대표는 당의 혁신 키워드로 '유능, 기민, 겸손'을 제시했다. 하지만 각종 현안들에 대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68명에 이르는 초선들과 진보 성향 친문 의원들을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원-팀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과제다. 또 미래 세대인 청년 세대와의 소통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다.

당청 및 당청 관계도 관심사다. 철저한 관리형이었던 이해찬 전 대표와는 달리 당 내에서 유력 대권주자로서 확실한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이 대표로서는 당청 및 당청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지향점이 다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낙연 의원이 자가격리로 인해 자택에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밝힌 바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당청 및 당청 관계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차별화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더구나 국무총리 출신인 이 대표의 지지율이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연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별적 차별화에 나서기 보다 당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주류인 친문 세력과 당분간 밀월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는 일단 올해까지 코로나 19 사태 극복과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공수처 출범 등 개혁 과제와 부동산 등 각종 현안을 청와대와 함께 풀어가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당면 현안은 슈퍼 여당의 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영광 가난한 농부 7남매 장남...최장수 총리 거쳐 당대표까지

이낙연은 누구?

DJ 권유로 정계 입문

내리 4선후 전남도정 이끌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는 평소 북엇국을 먹으면서도 매콤한 토라것을 한 숟갈 넣어 국물부터 맛을 보고, 막걸리를 즐기는 영락없는 전라도 사람이다.

영광에서 가난한 농부의 7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전남지사와 국무총리를 지냈다.

1979년 동아일보에 기자로 입사, 주로 정치부에서 일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교동계를 담당했다. 이어 1987년 대선 때

김 전 대통령이 창당한 평화민주당이란 당명을 만든 주인공으로 알려졌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합평·영광에서 당선된 뒤 내리 4선을 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했으나 2004년 총선 때 열린 우리당에 가지 않고 새천년민주당에 남았고 탄핵 역풍 속에서도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2014년 전남지사 선거에서 당선돼 도정을 이끌었으며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발탁됐다. 총리 재임 기간 안정감 있는 국정 보좌와 절제된 발언·태도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날 선 질문을 달변으로 재치있게 받

아넘기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뒤 지난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입과 행동을 무겁게 해 '엄중 이낙연'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총선 당시 황교안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면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했다.

21대 국회 입성 후에는 민주당 코로나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아 당의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했다.

▲영광(68)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16·17·18·19·21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대표비서실장·대변인 ▲전남도지사 ▲국무총리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오광록 기자 kroh@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해 국민의 삶 지켜내겠다"

이낙연 당대표 수락연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는 29일 첫 공식일정인 신임 지도부 회상간담회를 통해 "당의 국난극복위원회가 재구성되었는데 지금은 임시기구처럼 돼 있다"면서 "그 보다는 더 강화해야겠다는 판단으로 확대개편 하겠다. 그리고 대표가 직접 그 책임을 맡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주 전반쯤에 당정책 회의가 열리도록 준비되고 있다. 주로 민생지원과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협의 하겠다. 특히 민생지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실행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당정책 회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일정도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남 당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코로나 전쟁 승리와 민생 지원, 포스트 코로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 '5대 명령'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나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겠다. 그것은 승리"라는 2차 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의 어록을 언급하며 위기 극복에 대한 결의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협치와 관련해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통합의 노력을 강화하고,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자가 격리 중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제일 많이 났다"며 "어려운 시기 막중한 책임을 맡게 준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임기 내 목표로는 코로나 19 안정화, 민생 지원, 경제 회복, 미래 준비 등을 꼽았다. 그는 "자가격리가 끝나면 2~3일 안에

당정책 회의를 열고, 예년보다 강화된 민생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석 이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신념으로는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분께 더 많이 지원하는 게 맞다. 1차 지급 결과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는 것처럼 됐는데, 참고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파업 문제 해결책으로는 "환자가 있는데 파업하는 건 의료인 본분을 벗어나는 일이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현장에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인 부동산 입법 영향으로 매매시장은 안정화 길로 가고 있다. 정책 변화가 커서 전환기 진통을 앓고 있지만,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해 포용사회로 가지는 취지를 서로 이해하면 곧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오영훈

당 수석대변인에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낙연 신임 대표의 비서실장에 오영훈 의원을, 당 수석대변인에 최인호 의원을 각각 임명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과 상건례를 겸한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재선인 오영훈 의원은 이 대표의 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보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부산 지역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재선의 최인호 의원은 캠프에서부터 대변인 역할을 맡아왔다. 이 밖에 핵심 당직 인선은 31일 오후 이 대표가 주재하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총장에는 3선의 박광온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홍익표·이광재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는 노동계, 여성, 청년, 지역 등을 배려한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당내서는 한국노총에서 일단 1명을 추천받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전남대학교 제21대 총장임용후보자 초빙 공고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전남대학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능력과 비전을 가지신 분을 총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피선거권)의 요건을 갖춘 사람

• 등록서류 및 방법 : 방문접수

구분	기간	서류 목록	접수처
후보자등록	2020. 9. 7.(월) 09:00~ 2020. 9. 8.(화) 18:00	- 후보자등록 신청서 - 기탁금 원납 증명서 - 교수 또는 부교수 재직증명서(해당자) - 보직 사퇴서(해당자) -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후보자 추천서(외부인사)	광주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 접수증 제출	2020. 9. 7.(월) 09:00~ 2020. 9. 8.(화) 18:00 (후보자등록 후 즉시)	- 접수증 사본 - 후보자등록 신청서 사본(첨부 서류 제외)	추천위원회 (대학본부 305호)
후보자서류 제출	2020. 9. 9.(수) 09:00~ 2020. 9. 10.(목) 18:00	- 이력서 - 공정한행위 서약서 - 공약준수 서약서 - 소견서 및 공약사항 - 기타 추천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서류	추천위원회 (대학본부 305호)

• 기타사항

- 가. 서류 양식은 전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홈페이지(http://president21.jnu.ac.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 외부인사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추천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후보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문의처: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062-530-5960)

2020년 8월 31일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